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주식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② 증권거래법은 상법의 법원이다.
- ③ 상업등기처리규칙은 상법의 법원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상관습법으로서 상법의 법원이다.
- 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상사에 관한 국제조약은 상법의 법원이다.

2.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 ① 지배인은 독립한 경영자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상인이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각 영업소별로 수인(數人)의 지배인을 선임하지 않고 1인의 총지배인을 둘 수 있다.
- ③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선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배인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주식회사의 지점차장은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표현지배인에 해당된다.
- ⑤ 보험회사의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외무사원(보험모집인)은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3.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상법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영업의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②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인의 거래와 무관한 사실행위적 불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명의차용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③ 명의대여자의 책임발생요건으로서 대여하는 명의는 반드시 성명 또는 상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면허 없는 자가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서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위법한 명의대여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영업에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4. 甲은 乙이 운영하는 P 레미콘에 시멘트를 공급한 외상채권자이다. 한편 丙은 乙로부터 P 레미콘의 영업을 양수한 후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다. 이 때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甲은 丙에게 시멘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만약 丙이 乙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으면서 乙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경우에, 丙은 甲에 대하여 시멘트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③ 乙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그 효력이 있다.
- ④ 영업양도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丙이 甲에게 乙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때에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
- ⑤ 乙의 甲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5. 행위무능력자의 영업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고 등기하여야 유효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는 능력자로 본다.
-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인은 미성년자이다.

6.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② 익명조합의 경우 금전, 동산 등의 재산출자만이 인정되므로, 익명조합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④ 익명조합원은 영업상의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미 받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출자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⑤ 익명조합원은 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였다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甲은 A 정보통신(주)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乙 증권회사의 영업팀장에게 위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주당 1만원으로 3만주를 매수하여 줄 것을 위탁하면서 3억원을 인도하고 위탁증거금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 때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식을 매도한 자와의 법률관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는 乙 증권회사이다.
- ② 乙 증권회사는 주식을 매수한 후 지체 없이 甲에게 매매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乙 증권회사가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입했을지라도 乙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甲에 대해 효력이 있다.
- ④ 乙 증권회사가 지정가액보다 주식을 염가로 매입했을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甲의 이익이 된다.
- ⑤ 만약 A 정보통신(주)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 乙 증권회사는 직접 매도인이 될 수 있으나 거래의 당사자이므로 甲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8. 상법상 운송주선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 ②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③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운송주선계약에 의해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替當金)이나 선대금(先貸金)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9. 주식회사의 발기인·발기인조합 및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가 발기인이 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개업준비행위는 발기인의 권한에 포함된다.
- ③ 발기인조합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이다.
- ⑤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였다가 성립 후의 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를 통해 귀속된다.

10.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물출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도 있다.
- ②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에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서의 우선권, 회사제품의 총판매권부여, 의결권에 대한 특혜 등이 포함된다.
- ③ 이사와 감사 전원이 현물출자자인 경우는 감정인이 대신 설립경과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④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할 때 액면초과발행시의 주식발행가액과 납입기일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정한다.
- ⑤ 회사의 설립등기 후에도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1. 주식회사의 설립관계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가 사기·강박·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발기인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주식의 인수나 납입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 책임을 지는 외에 손해배상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한다.
- ③ 발기인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도 면제될 수 없다.
- ④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⑤ 유사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자본충실의 책임과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의 그에 따른 책임만 부담한다.

12.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판례에 따르면, 회사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지 못한다.
- ② 주주명부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쇄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주주명부에 등록질권자로 기재된 자는 적법한 질권자로 추정되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실무상으로는 결산기 이후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할 주주와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의 폐쇄제도와 기준일제도가 병용되고 있다.
- ⑤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주주의 주소변경은 가능하다.

13. 주식의 양도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가 승인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 ③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채권적 효력)이 있다.
- ④ 주식의 양도는 6월 경과 전에 이루어졌으나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6월 경과 전의 양도의 하자가 치유된다.
- ⑤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4. 주식의 담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등록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계속 점유하여야 한다.
- ② 기명주식의 약식질권자는 물상대위의 대상이 금전인 때에는 그 지급 전에 압류할 필요 없이 직접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③ 무기명주식의 입질은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질권 설정자에 대한 주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한다.
- ④ 약식질권자에게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15. 주식의 소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이익소각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의 경우에 회사가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소각된 주식수만큼 신주를 재발행할 수 있다.
- ④ 이익소각을 위해서는 정관에 이익소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이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후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결한 후로 정하지 못한다.

16.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직접 대표이사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총회의 소집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선임결의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비율과 관련하여,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보다 높은 비율을 정할 수는 있으나 낮은 비율을 정할 수는 없다.
- ③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주주로부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통지를 받은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결의하기 전에 거부할 수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가 결의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⑤ 통설에 따르면, 이사·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결의에서 당사자이며 주주인 이사·감사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7.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3인의 이사를 둔다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A, B, C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판례에 따르면, A, B, C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결의가 종료된 때에 상법상의 이사가 된다.
- ② A, B, C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하기 전에 만료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甲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A, B, C를 해임할 수 있으며, 만일 甲이 A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도중에 해임한 때에는 甲은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B가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경우에, B는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이사로써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가진다.
- 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D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8. 甲 상호신용금고(주)의 대표이사 A는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甲 상호신용금고(주)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에 甲 상호신용금고(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B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회사의 손해로 인하여 이익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B는 A를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B가 회사를 대표하여 A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에 보유주식의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인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B가 회사를 대표하여 A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A와 B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할 수 있다.
- ④ B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하여 B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B가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가 없는 한 비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9.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사는 지위의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의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사용인은 될 수 있다.
- ②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경우에, 감사는 이사와 달리 주주총회에서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 ③ 감사와 회사 간의 관계는 위임이므로, 감사에게는 경업피지의무 및 자기거래금지의무가 인정된다.
-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총수의 과반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한회사는 수권자본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총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②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사원수가 50인을 초과할 수 있다.
- ③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사원 이외의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보다 결의요건을 가중할 수 있다.
- ⑤ 자본증가 후에 아직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미필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사원과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 또는 급여미필재산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 ㄱ. 회사의 목적은 상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ㄴ. 민사회사는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다.
- ㄷ. 수단으로서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은 회사가 아니지만, 상법이 적용된다.
- ㄹ. 비영리사단법인도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회사가 되고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ㅂ.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는 예외이다.

- ① ㄱ, ㄴ, ㅂ      ② ㄷ, ㅁ, ㅂ      ③ ㄷ, ㄹ, ㅁ
- ④ ㄱ, ㄷ, ㅁ      ⑤ ㄱ, ㅁ, ㅂ

22.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인적회사에는 법정청산만 있고 임의청산은 인정되지 않지만, 물적회사에는 법정청산 이외에 임의청산도 인정된다.
- ②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 노무, 신용의 출자도 가능하지만, 물적회사의 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만 출자할 수 있다.
- ③ 인적회사에는 최저자본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는 각각 5000만원, 1000만원의 최저자본금제도가 존재한다.
- ④ 인적회사는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불가능하지만, 물적회사는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이 가능하다.
- ⑤ 인적회사에는 퇴사제도 및 제명제도가 인정되지만, 물적회사에는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23. 해산판결 및 해산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회사는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의 권리능력이 상실된다.
- ②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해산을 명해야 한다.
- ③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행위가 정관에 위반한 것만으로는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없다.
- ④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해산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도 원고는 악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4.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신주의 발행 여부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 ② 회사설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을 예정한 주식의 전부에 대한 인수와 납입이 있어야 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현물출자로 인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일반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
- ④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부담한다.

25.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주권비상장법인은 이사와 감사 및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신주 교부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
- ③ '자기주식 교부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주주가 된다.
- ④ '신주 교부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⑤ '자기주식 교부방식'의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26.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자본감소를 하려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제출기간을 주어야 한다.
- ②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의채권자에 한하여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다.
- ③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로부터 6월 이내 소만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자본감소무효의 소에는 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채권자보호절차 또는 주식소각 및 주식병합의 절차 중에서 최종의 절차가 종료하는 때가 아니라, 변경등기를 한 때이다.

27.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다.
- ② 자본의 결손은 먼저 이익준비금으로 전보하고, 이것이 부족한 때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하지 못한다.
- ③ 통설에 따르면,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준비금에는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이 모두 포함된다.
- ④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약식질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의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

28. 상법상 중간배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결산기를 연 1회로 정한 회사만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중간배당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만 가능하다.
- ③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간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중간배당금의 시효기간은 5년이다.
- ⑤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중간배당은 당연 무효이며, 회사채권자는 직접 주주에 대하여 위법배당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9.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황에 갈음하여 주금(株金)을 대용납입한 경우 사채의 상환기일에 주주가 된다.
- ② 비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은 채권의 교부에 의하여 사채권과 함께 양도한다.
- ③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의 결과 신주가 발행된 경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주주로 보는 시기는 그 납입을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로 한다.
- ⑤ 대용납입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0. 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D조합은 A회사를 상대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후 A회사는 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B회사와 C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고, 각 신설회사가 A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승계하여 부담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았다. 이 때 A회사는 D조합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제출을 위한 개별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을 하였다.

- ① 사안에서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된다면, B회사와 C회사는 A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A회사는 B회사와 C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 ② ①의 경우 A회사와 B회사 및 C회사의 책임관계의 법적 성질은 분할채무이다.
- ③ A회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A회사를 상대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D조합은 A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 ⑤ A회사가 D조합에 대해 개별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A회사와 B회사 및 C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31.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의 이동(異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양자는 모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들의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 ② 주식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에는 완전자회사와 관계가 없는 주주가 존재하지만,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주식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을 뿐이지만, 주식이전의 경우는 자기주식의 교부도 허용된다.
- ④ 주식교환무효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의 당사회사가 모두 법인격을 유지하지만, 주식이전무효의 경우에는 설립된 모회사가 해산에 준하여 청산을 해야 한다.
- ⑤ 주식교환무효의 소와 주식이전무효의 소에는 모두 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32.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회사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의 일부를 한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 ②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개별적 이전절차 없이 존속회사로 승계되며,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는 권리의 경우에도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 ④ 소멸회사의 사원은 단주(端株)로 인하여 제외되는 부분, 합병교부금만을 교부받는 부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다.
- ⑤ 회사가 채권자의 이의제출을 위한 공고 및 개별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합병취소의 원인이 된다.

33. 어음 및 수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어음과 수표는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모두에 증권의 소지를 요한다.
- ② 환어음에는 만기전 소구가 인정되지만, 수표에는 만기전 소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발행인과 배서인은 환어음 및 수표의 소구의무자이다.
- ④ 환어음에는 복본제도가 인정되지만, 약속어음에는 복본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는 자금관계가 존재한다.

34.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에서 기명은 반드시 그 본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 ② 기명과 함께 무인(拇印) 또는 지장(指章)의 어음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기명날인으로 본다.
- ③ 기명의 명 의와 날인의 명 의가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기명날인이다.
- ④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한 어음행위는 모든 조합원에게 효력이 있다.
- ⑤ 어음행위가 행위자의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어음행위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5. 수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경과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지급인이 배서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한 배서는 유효하다.
- ③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④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의 효력이 없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수표의 지급보증에서 지급보증일자가 없으면 지급보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6. 환어음의 만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통설에 따르면, 만기는 발행 당시에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어음금액의 일부씩에 대하여 각각 만기를 정할 수 없다.
- ② 어음법상 4종의 만기 중 일람출급과 확정일출급은 확정된 만기이지만, 발행일자후정기출급과 일람후정기출급은 확정할 수 있는 만기이다.
- ③ 일람출급어음이라 하더라도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의 만기는 인수의 일자 또는 인수 거절증서의 일자에 의하여 정한다.
- ⑤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 인수일자의 기재가 없고 거절증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 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37.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 ① X로부터 어음을 양수받은 정당한 어음소지인 B가 자신의 배서 앞뒤에 허무인 A 및 C를 기재하여 Y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성이 부정된다.
- ② X로부터 액면가 1억원의 어음을 양수받은 A가 배서란에 '5천만원에 대하여 무담보'라고 기재하여 B에게 양도한 경우에, A는 5천만원에 대하여는 B와 그 후자 모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B가 A로부터 배서양도 받은 어음에 대하여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담당은행의 부도선언이 보전(補箋)에 기재되어 있다면, B는 A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A는 X와의 물건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이를 B에게, B는 C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X는 C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B가 자신의 채무자 A로부터 채권담보를 위해 질권설정계약만을 체결하고 X가 발행한 환어음을 양도배서 받아 C에게 다시 배서양도한 경우, C 및 그 후자에게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8. 어음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효력이 있다.
- ② 환어음의 지급은 보증에 의하여 금액의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없다.
- ③ 환어음의 지급인을 피보증인으로 하더라도 유효하다.
- ④ 피보증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소지인을 위한 보증으로 본다.
- ⑤ 어음보증은 반드시 어음 표면에 '보증'이라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효력이 있다.

39.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대표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자신을 발행인으로 하여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X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배서를 함에 있어서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A의 기명날인 없이 회사의 법인인(法人印)만을 날인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이다.
- ③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B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X는 A 및 B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A가 아무런 권한없이 B의 대리인인 것처럼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어음을 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B가 이를 추인하였다면, B는 C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⑤ B의 협의의 무권대리인 A는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A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B의 전자에 대하여 B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40. 어음소지인 A는 X가 발행한 어음의 어음금을 추심하기 위한 취지에서 B에게 양도배서를 하였지만,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B가 어음채무자에게 추심하지 않고 C에게 배서하여 양도하였다. 이 경우 옳은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은? (통설 및 판례에 의함)

- ㄱ. A와 B의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이다.
- ㄴ. B가 C에게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X에 대한 어음금 지급청구는 유효하다.
- ㄷ. B가 C에게 양도하기 전 A는 B에게 담보책임을 진다.
- ㄹ. A는 어음소지인 C에게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 ㅁ. A가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B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ㅁ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